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하 진 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경상남도 J시와 C시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268명과 그들의 어머니 2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이 유아 자율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아의 경우, 유아 기질 차원 중 활동성 자율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유아 기질 구성차원과 자율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가 유아 자율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한계설정 자율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여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이 자율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주제어: 기질(temperament)
양육행동(child-rearing behavior)
자율행동(autonomous behavior)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의 자율성은 고대 이래 변함없는 인간적 이상으로 추구되어 왔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의 방식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신의 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인간 존재와 삶의 가치라고 여겨져 왔다.

최근 급변하는 정보화·다원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성적 견해를 갖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강조된다(이지현, 2000). 또한 가치가 다른 타인이나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내는가가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타율에 의한 행동조절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자기선택, 자주적 의사결정과 책임감 인식과 같은 자율성이 요구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태도와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하였다.

자율성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제재의 개입 없이 자기 결정에 의해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으로, 선천적인 능력(Lamb, 1992)인 동시에 성인이 제시하는 적절한 훈육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Peters, 1987)이기도 하다. 자율성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하는 유아들은 현재의 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는 보고들(Clark & Ladd, 2000; Mattanah, 1999; Stefanou, Perencevich, DiCintio, & Turner, 2004)은 교육관계자들로 하여금 발달에 대한 이해나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자율성 측면을 강조하도록 유도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역시 자율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교육부, 1998), 자율성 발달이 유아교육기관의 중요한 사회화 기능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을 기초로 한 자율행동은 유아에게는 최초의 사회교육 집단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일과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가정과 달리 유아는 유치원의 다양한 활동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과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욕구를 조절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행동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서는 유아들이 점점 더 어린 연령에 유아교육기관의 사회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유아기의 자율행동 수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유아기에 자율행동 수행이 잘 이루어지면 유아기 이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율행동은 유아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도덕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에는 학문적 성취와 심리·사회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Bell, 2005; Pelco, 2007). 이는 내면적·외현적 행동에도 영향을 주기(이정란, 2003; Clark & Ladd, 2000; Mattanah, 1999)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유아에게 자율행동의 발달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유아기의 자율행동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율행동은 주로 청소년(김현주, 김정희, 1998; 문경주, 2005)이나 학령기 아동(김경희, 2002; 이정안, 2002)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행동 관련 연구(김정주, 1991; 장길순, 2005; 한미예, 2004)가 일부 수행되었다. 그러나 자율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자율행동이 인생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아 자율행동을 파악하고 자율행동 발달과 관련된 변인을 알아볼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정을 떠나 다양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자율행동과 관련 변인에 대한 파악은 지속적으로 사회기관에서 타인과 생활하면서 성장할 유아의 초기 자율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자율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개인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유아의 기질, 성, 연령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아의 개인 내적 변인을 이해하고자 한 많은 시도 중에서 기질에 관한 연구는 유아의 성격과 행동발달이 있어서 개인차를 규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Merrell, 1999). 이는 유아가 환경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관점에 근거하는 것이며, 같은 환경 조건에 있는 유아일지라도 개인차가 있으며 그 기질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행동 유형이 나타남을 의미한다(서정은, 2005). 유아 개인의 특정한 행동 특성이나 기질 특성이 이후의 행동장애와 관련된다고 지적하면서 기질을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어(천희영, 1992; 최미숙, 김미숙, 2006; Thomas & Chess, 1977), 기질이 유아의 자율행동 발달에도 중요한 관련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아의 기질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김지수, 유병인, 육동원, 박윤식, 1999; 이경옥, 2004; 한희정, 2006), 이러한 차이가 유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질이 자율행동 발달에 있어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성별에 따라서 자율행동 발달에 관련된 기질의 구성 차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질이 자율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예상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자율행동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유아의

자율행동과 근사한 개념인 자기조절, 자기규제, 자기통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질과 자율행동 간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유아 기질과 자기조절 및 규제, 통제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질과 자율행동, 자기조절 및 규제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모인선, 김희연, 2005; 안미경, 1996; 이정란, 2003; Bronson, 2000; Elias & Berk, 2002)와, 기질과 자기조절 및 통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과(곽혜경, 1998; 김미혜, 윤호열, 2005; 박호선, 2002)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질과 자율행동 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자기조절과 기질은 성별에 따라 관련된 기질 구성 차원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정지영, 2005; 최미숙, 김미숙, 2006)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박호선, 2002)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질과 자기조절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힌 연구 결과들에서도 기질이 연령이나 인지양식과 같은 다른 변인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율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자율행동과 기질 간에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자율행동이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의 유아 기질 구성 차원 중 어떤 측면과 관련되는지를 밝힐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 자율행동과 관련된 외적 변인에는 부모, 교사, 또래의 인적자원과 가정환경, 교육기관의 환경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유아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의 여러 요소 중 중요한 인적환경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유아의 행동과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아가 가정의 어머니 및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행동, 태도, 가치관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율행동은 일정 부분이 학습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 자율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양육자의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가 출생 직후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자기 조절의 경험을 갖도록 배려할 때,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율행동 발달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Bronson, 2000; Clark & Ladd, 2000; Mattanah, 1999; Zhang, 2005)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율행동 연구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성에 따라 차이가 나며(양정선, 1997; Someya, 2000), 이러한 차이가 유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율행동 발달에 있어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성별에 따라서 자율행동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영·유아기 자율행동 및 자기조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유방법이나 대소변 훈련의 강도 등의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유안진, 1986; 이광자, 199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 자율행동(김남희, 1999; 우수경, 김기예, 2007), 어머니의 성역할 개념과 유아 자율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것(한미예, 2004)이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과 관련된 양육행동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정지영, 2005)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박호선, 2002)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 자율행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고, 성별에 따라 자율행동과 관련된 양육행동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가 가정에서 보이는 유아의 자율행동을 관찰·평정한 것이어서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유아 자율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유아 시기가 되면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다양한 타인과 가치, 문화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생활해야 하고, 유아기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 속에서 성장해야 하므로, 가정의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자율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내·외적 변인과 유아교육기관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관찰 가능한 자기조절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김은미, 2006; 정은주, 2005)에서 유아 개인 내적 변인 및 외적 변인과 자기조절 행동 간의 관계성이 보고 된 바 있다. 그러나 김은미와 정은주의 연구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유아교육기관의 일련의 일과활동 속에서 보이는 유아의 자율행동을 평정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치원 일과활동에서의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기질 및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므로,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성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치원 일과활동에서의 유아 자율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지에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를 성별로 보면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를 성별로 보면 어

떠한가?

B. 용어의 정의

1. 유아 자율행동

자율행동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되,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 행위의 양식이자 실천형식으로(김현정, 2001), 자율적 의사결정, 자기표현, 독립적 행동이행, 자기평가, 책임완수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김경희, 2002). 또한 자율행동은 외부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이자, 타인이 공유하는 행위로서, 상황적 배경을 고려하여 행동을 선택, 실행하는 것이다(이지현, 2000; 이학선, 2007).

본 연구에서의 유아 자율행동은 유아가 유치원의 일과활동에 참여하면서 교사나 타인의 직접적인 요구나 지시 없이, 상황에 적합하도록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자율행동의 하위 범주는 등원 및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이학선, 2007)이다.

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S시와 J시에 소재한 공립유치원 28학급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268명(남아: 133명, 여아: 135명)과 유아의 어머니 268명이었다.

B. 연구도구

1. 유아의 자율행동 검사도구

유아 자율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학선(2007)이 개발한 「유아 자율행동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 검사 도구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사용 평정척도이며 평정자는 유아교육기관의 일과활동 속에서 유아의 자율행동을 관찰한 바에 근거하여 평정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 도구의 구성은 「등원 및 일과계획」에 등원 3문항, 계획 2문항의 5문항, 「자유선택활동」에 적목/역할 4문항, 조작/수과학 5문항, 음률/도서/조형 4문항, 공통 11문항의 24문항, 「정리정돈 및 전이」에 정리 6문항, 전이 4문항의 10문항, 「집단활동」에 이야기나누기 2문항, 동화/동극 2문항, 게임 4문항, 공통 4문항의 12문항, 「평가 및 귀가」에 평가 2문항, 귀가 1문항의 3문항으로 5개 일과활동 범주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자는 교사이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의 2점, ‘그런 편이다’의 3점, ‘매우 그렇다’의 4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행동 수행이 높은 유아를 의미한다.

유아 자율행동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합치도 α 값은 「등원 및 일과계획」은 .84, 「자유선택활동」은 .94, 「정리정돈 및 전이」는 .89, 「집단활동」은 .88, 「평가 및 귀가」는 .67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7이다(이학선, 2007).

2. 유아의 기질 검사 도구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천희영(1992)이 개발한 유아용 기질 질문지를 사용한다. 이는 Thomas와 Chess(1977)가 개발한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와 Carey와 McDevitt(1978)가 개발한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및 어머니와의 면접에서 수집된 것을 참고로 하여 천희영(1992)이 3~7세의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유아용 기질 질문지이다.

검사 도구의 구성 차원은 적응성(10문항), 활동성(9문항), 생리적 규칙성(4문항), 반응성(6문항), 정서성(4문항)의 5개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도구 구성 차원별 높은 점수의 의미는,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따른 적응도가 높음,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 반응성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하게 반응을 보임, 정서성은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상태가 긍정적임을 말한다.

응답자는 어머니이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의 2점, ‘그런 편이다’의 3점,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반응하도록 하며, 부정문항은 1점은 4점, 2점은 3점, 3점은 2점, 4점은 1점으로 역채점하도록 한다.

이 기질 검사의 신뢰도를 반영하는 내적합치도 α 값은 구성 차원에 따라 .65~.8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4이다(천희영, 1992).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홍계옥(1995)이 번안하여 개발한 「어머니 양육행동 측정도구」(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사용한다. 이는 Crase, Clark과 Pease(1978)가 개발한 아이오와 부모양육행동 척도(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홍계옥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어머니용 양육행동 측정도구이다.

검사 도구의 구성은 합리적 지도(reasoning guidance) 8문항, 한계설정(limit setting) 5문항, 애정성(intimacy) 8문항, 반응성(responsiveness) 5문항의 4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도구의 하위 요인별 의미는, 합리적 지도는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양육행동, 한계설정은 제한영역을 다소 엄격하게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양육행동, 애정성은 적극적인 지원과 신체적 표현 행동 등 친밀성을 표현하는 양육행동, 반응성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자녀의 요구에 대한 반응 여부를 포함하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설문지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한 평정이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의 2점, '보통이다'의 3점, '그런 편이다'의 4점, '거의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반영하는 내적합치도 α 값은 합리적 지도 .82, 한계설정 .72, 애정성 .72, 반응성 .71이며,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4이다(홍계옥, 1995).

C. 연구절차

1. 연구대상 선정 절차

연구대상 유치원 선정은 경상남도 S시와 J시에 소재한 총 51개 84학급의 공립 유치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유아의 연령, 학급당 원아 수, 담임교사의 경력 및 검사 평정에 대한 동의여부, 유치원 환경과 일과운영을 고려하여 16개 유치원에서 28학급을 표

집 하였다.

연구대상 연령을 만 5세로 선정한 이유는, 발달 특성상 독립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옷차림, 친구, 놀이 등에서 개별적인 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자기통제감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만 5세 유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행동을 바탕으로 이후 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위한 독립심과 책임감을 길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송명자, 1995)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담임교사의 경력 면에서, 유아의 자율행동을 평정하는 교사의 경력을 최소 5년으로 하여 연구대상 유치원 선정에 고려하였다. 교사의 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평가의 중요성, 평가방법 및 평가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수행이 성숙단계에 있어서 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최연철, 2002)를 토대로 한 것이다.

유치원 환경과 일과운영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 자율행동 검사」가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등원 및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의 일과활동 중 관찰할 수 있는 자율행동을 평정하는 도구이므로, 유치원 선정에 이와 같은 활동이 운영되는 곳을 고려하였다.

선정된 28학급에서, 유아의 자율행동과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담임교사의 교수행동이 유치원 일과활동 중 유아의 자율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반의 남아 유아 각 5명씩 총 10명을 무선으로 표집 하였다.

표집된 유아와 어머니 각각 280명 중 세 종류의 설문지 짝이 맞지 않거나 응답 문항이 누락, 오기된 자료 12명을 제외한 유아 268명(95.7%), 어머니 268명(95.7%)을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2. 본 연구

1) 유아의 자율행동 검사

유아의 자율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 5월 23일(수)부터 6월 15일(금)까지 연구대상 유아의 유치원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평정자인 담임교사가 유아 1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일과활동에서의 유아 자율행동에 대해 평상시 관찰한 것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검사 방법 및 주의사항을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전달한 후, 검사지를 배부하였다.

2) 유아의 기질 검사 및 어머니 양육행동 측정 검사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 5월 23일(수)부터 6월 15일(금)까지 연구대상 유아의 유치원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의 협조로 「유아용 기질 질문지」, 어머니 양육행동 측정」 검사지를 유아 편에 어머니에게 배부한 후, 소속 유치원으로 돌려받았다.

3. 자료처리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특성, 유아의 자율행동 점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 검사, 유아의 자율행동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자료 처리는 SPSS for Windows 12.0 Program으로 전산 처리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율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1.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N=268)

| | 유아 자율행동 | | | | | 전 체 |
|------------|--------------|------------|--------------|--------|------------|---------------|
| | 등원 및 일과계획 | 자유선택 활동 | 정리정돈 및 전이 | 집단활동 | 평가 및 귀가 | |
| 적응성 | -.07 | -.06 | -.18** | -.07 | -.09 | -.11 |
| 활동성 | -.24** | -.23** | -.33** | -.20** | -.21** | -.27** |
| 기질 생리적 규칙성 | .03 | .04 | .10 | .10 | .04 | .07 |
| 반응성 | -.01 | -.08 | -.04 | -.03 | -.08 | -.06 |
| 정서성 | .04 | .07 | -.04 | .05 | -.01 | .04 |

** $p < .01$.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차원 중 활동성($r = -.27, p < .01$)이 유아 자율행동과 미약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활동성 기질이 높은 유아일수록 자율행동 수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성을 제외한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기질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의 하위 범주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차원 중 적응성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r = -.18, p < .01$)와 아주 미약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따른 적응도가 높은 기질의 유아일수록 정리정돈 및 전이 활동 중 자율행동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의 기질 차원 중 활동성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미약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r = -.33, p < .01$)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등원 및 일과계획($r = -.24, p < .01$), 자유선택활동($r = -.23, p < .01$), 평가 및 귀가($r = -.21, p < .01$), 집단활동($r = -.20, p < .01$)의 순이었다. 이는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활동성 기질이 높은 유아일수록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인 등원 및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의 일과활동 중 자율행동 수행이 낮음을 의미한다.

활동성과 적응성을 제외한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기질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아의 성별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성별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 성별 | 유아의 기질 | 유아 자율행동 | | | | | 전체 |
|----|---------|-----------|---------|-----------|--------|---------|--------|
| | | 등원 및 일과계획 | 자유선택 활동 | 정리정돈 및 전이 | 집단활동 | 평가 및 귀가 | |
| | 적응성 | -.06 | -.07 | -.14 | -.05 | -.07 | -.09 |
| | 활동성 | -.31** | -.25** | -.38** | -.29** | -.27** | -.35** |
| 남아 | 생리적 규칙성 | .10 | .18* | .19* | .19* | .05 | .16 |
| | 반응성 | -.02 | -.07 | .03 | -.04 | -.03 | -.03 |
| | 정서성 | .04 | .14 | .02 | .14 | -.00 | .07 |
| 여아 | 적응성 | -.01 | .02 | -.13 | -.02 | -.06 | -.04 |
| | 활동성 | -.11 | -.15 | -.20* | -.05 | -.11 | -.14 |
| | 생리적 규칙성 | -.02 | -.11 | .02 | .04 | .03 | -.01 |
| | 반응성 | -.05 | -.12 | -.18* | -.07 | -.15 | -.13 |
| | 정서성 | .08 | .04 | -.05 | .01 | .01 | .02 |

* $p < .05$ ** $p < .0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남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r = -.35, p < .01$)이 유아의 자율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성을 제외한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r = -.38, p < .01$)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등원 및 일과계획($r = -.31, p < .01$), 집단활동($r = -.29, p < .01$), 평가 및 귀가($r = -.27, p < .01$), 자유선택활동($r = -.25, p < .01$)의 순이었다. 또한 유아의 기질 차원 중 생리적 규칙성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r = .18, p < .05$), 정리정돈 및 전이($r =$

.19, $p < .05$), 집단활동($r = .19, p < .05$)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을 제외한 적응성, 반응성, 정서성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r = -.20, p < .05$)과 반응성($r = -.18, p < .05$)이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미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아는 활동성, 반응성을 제외한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정서성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B.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N=268)

| | | 유아 자율행동 | | | | 평가 및 귀가 | 전 체 |
|-----------------|--------|--------------|------------|--------------|-------|------------|-------|
| | | 등원 및 일과계획 | 자유선택 활동 | 정리정돈 및 전이 | 집단활동 | | |
| 어머니 양육 행동 | 합리적 지도 | .19** | .27** | .26** | .26** | .24** | .28** |
| | 한계설정 | .06 | .09 | .06 | .10 | .11 | .10 |
| | 애 정 성 | .00 | -.01 | -.01 | -.01 | -.01 | -.01 |
| | 반 응 성 | .01 | .01 | .01 | -.02 | .01 | .01 |

** $p < .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r = .28, p < .01$)만 유아 자율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게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돕기 위해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밝혀주고,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를 둔 유아가 자율행동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합리적 지도를 제외한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과 유아 자율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행

동의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미약한 정적 상관 이 나타났는데,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r = .27, p < .01$)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리정돈 및 전이 ($r = .26, p < .01$), 집단활동($r = .26, p < .01$), 평가 및 귀가($r = .24, p < .01$), 등원 및 일과계획($r = .19, p < .01$)의 순이었다. 이는 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를 둔 유아일수록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인 등원 및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의 활동 중 자율행동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합리적 지도를 제외한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아 성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 성별 | 어머니의 양육행동 | 유아 자율행동 | | | | | 전 체 |
|----|-----------|-----------|---------|-----------|-------|---------|--------------|
| | | 등원 및 일과계획 | 자유선택 활동 | 정리정돈 및 전이 | 집단활동 | 평가 및 귀가 | |
| 남아 | 합리적지도 | .11 | .21* | .16 | .04 | .10 | .13 |
| | 한계설정 | .15 | .24** | .17* | .17* | .20* | .22* |
| | 애 정 성 | -.06 | -.01 | -.01 | -.07 | -.01 | -.03 |
| | 반 응 성 | -.25** | -.15 | -.13 | -.14 | .01 | -.15 |
| 여아 | 합리적지도 | .20* | .38** | .34** | .34** | .31** | .37** |
| | 한계 설정 | .02 | -.02 | .02 | .08 | .04 | .03 |
| | 애 정 성 | .09 | .02 | .06 | .09 | .01 | .06 |
| | 반 응 성 | .25** | .19* | .17* | .12 | .03 | .17* |

* $p < .05$, ** $p < .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한계설정($r = .22, p < .05$)만 유아 자율행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계설정을 제외한 합리적 지도, 애정성, 반응성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r = .37, p < .01$)와 반응성($r = .17, p < .05$)이 유아의 자율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을 제외한 한계설정, 애정성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r = .21, p < .05$)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한계설정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r = .24, p < .01$), 정리정돈 및 전이($r = .17, p < .05$), 집단활동($r = .17, p < .05$), 평가 및 귀가($r = .20, p < .05$)와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반응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등원 및 일과계획($r = -.25, p < .01$)과 미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애정성만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r = .38, p < .01$)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리정돈 및 전이($r = .34, p < .01$), 집단활동($r = .34, p < .01$), 평가 및 귀가($r = .31, p < .01$), 등원 및 일과계획($r = .20, p < .05$)의 순이었다. 또한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반응성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등원 및 일과계획($r = .25, p < .01$), 자유선택활동($r = .19, p < .05$), 정리정돈 및 전이($r = .17, p < .05$)와 미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아는 합리적 지도, 반응성을 제외한 한계설정, 애정성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A. 논의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이 유치원 일과활동에서의 유아 자율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이 유아 자율행동과 미약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유아의 자율행동 수행이 낮음을 의미한다.

유아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미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활동성은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등원 및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평가 및 귀가, 집단활동의 순이었다. 또한 기질 구성 차원 중 적응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아주 미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활동성과 적응성을 제외한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기질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 간의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유아의 위협 회피 및 인내력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가정에서 보이는 유아 자율행동 발달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오현숙, 2006)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조절능력과 활동성 기질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데, 유아의 높은 활동성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의 결여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Wills, DuHamel, & Vaccaro, 1995)와 맥을 같이한다. 활동성이 낮을수록 자기조절 수행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박호선, 2002; 안미경, 1996; 정지영, 2005; 최미숙, 김미숙, 2006)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자율행동은 유치원의 일과활동 속에서 요구되는 자율행동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치원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활동성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유아가 자율행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정과 유치원은 고려해야 할 상황적 맥락이 다르다. 유치원에서 유아는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학급의 규칙 등 가정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자율행동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활동성이 높은 특성의 유아들은 또래 간의 협조성과 안정성이 줄어들고, 규칙성이 부족하며, 또래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주위가 산만하여 또래 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홍계옥, 2001; 황윤세, 2007)는 점에서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이 또래의 관계나 유치원의 규범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치원의 일과활동 중 요구되는 유아 자율행동은 또래와 교사, 학급의 다양한 규범 안에서 교사의 지시나 요구 없이 행하는 것으로,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은 유치원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율행동 수행이 낮음을 추론 할 수 있다. 이는 활동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김영희, 1996)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또한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과 유아의 자율행동과의 관계는 근래의 한국 대부분의 유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기·조기교육의 정도와 유아의 성격 및 행동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권정윤, 장영희, 2007; 신의진, 2004;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각종 특기·조기교육에 노출되었던 시간이 많은 유아일수록 주의산만 및 끈기부족, 공격성과 같은 과잉 활동적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으며(신의진, 2004), 특기·조기교육의 경험이 많은 유아들이 자율행동이 부족하다고 하였다(우남희 외, 2005). 이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부적 상관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유아 자율행동과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던 본 연구 결과는 활동성이 높은 유아가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던 연구 결과(정은주, 2005)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활동성을 제외한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기질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본 연구 결과는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정서성이 높은 유아들이 자기조절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안미경, 1996; 임희수, 2001)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질과 자기조절의 평정을 어머니가 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평정에 의한 기질과 교사의 평정에 의한 유아 자율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질적 성향은 유아가 속한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최미숙, 김미숙, 2006)와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신뢰로운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간의 나타난 부적 상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별로 없으나,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활동성 기질과 비교적 높은 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자발성이 높은 유아는 정리정돈을 열심히 하는 반면, 타율적 행동경향성이 강한 유아는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현정환, 山本愛子, 片岡美子, 1997)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활동성 기질이 높은 유아들은 또래 간의 협조성과 안정성이 줄어들고, 규칙성이 부족하여(황윤세, 2007), 정리정돈 및 전이 활동 동안 학급 규칙 준수에 대해 교사의 잦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정리정돈 및 전이 활동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의무감이 필요한 활동(DeVries & Zang, 1994)으로 교사의 빈번한 주목은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에 대한 자발적 동기화를 방해한다. 이는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중 요구되는 행동을 타인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타율적 행동 이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 집단활동과의 부적 관계는, 활동성 기질과 놀이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황윤세, 2007)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황윤세(2007)의 연구에서는 활동성 기질이 낮은 유아가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생각 공유하기, 다른 유아 돕기, 격려하기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일과활동 중 교사의 지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자유선택활동, 집단활동 중에 활동성 기질이 낮은 유아들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상황에 적합한 자율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남아의 경우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이 유아의 자율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성을 제외한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이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성은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등원 및 일과계획,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 자유선택활동의 순이었다. 또한 기질 구성 차원 중 생리적 규칙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을 제외한 적응성, 반응성, 정서성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과 반응성이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미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아는 활동성, 반응성을 제외한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정서성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활동성 기질이 남아와 여아의 자기통제력과 부적 상관이 있고, 적응성과 생리적 규칙성이 여아의 자기통제력과 정적 상관이 나타난 연구 결과(정지영, 2005)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여아 경우, 기질과 자율행동 간에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기질과 자기조절력의 관계에서 남자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여아의 경우만 생리적 규칙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난 연구 결과(최미숙, 김미숙, 2006)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각 연구가 측정하고 있는 자율행동의 상황과 과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유아는 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를 학습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정지영, 2005), 기질의 영향보다 양육행동이

교육기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라 자율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로운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 자율행동 수행을 높이기 위해 유아가 가진 기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특히 활동성이 높은 유아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는 유아의 특성으로 인정하고, 대신 유아가 활동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을 계획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후천적인 교육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에 초점을 두어 유아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자율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가 유아 자율행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의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녀에게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돕기 위해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밝혀주고,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를 둔 유아가 자율행동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합리적 지도는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 등원 및 일과계획의 순이었다. 합리적 지도를 제외한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와 유아 자율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난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로 하여금 지위, 위치, 및 규준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는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가 자율행동이 높다는 연구 결과(김남희, 1999)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규칙을 부여하고 규칙에 대한 이유를 고려하면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아의 자율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와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가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권수정(2005)의 연구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온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안미경, 1996; 임희수, 2001)과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주로 사용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율행동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조성민, 이순형, 1998)와도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합리적 지도와 유아의 자율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사회·문화적 정보를 전수하는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율행동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연구들(우수경, 김기예, 2007; Dix, Stewart, Gershoff, & Day, 2007; Low, 2003; Ng, Kenny-Benson, & Pomerantz, et, 2004)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양육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한다고 주장한 Vygotsky(1978/2000)의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은 자신과 타인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이자 대인간 현상이며(이지현, 2000), 자율행동은 적극적인 유아-성인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다(Mattanah, 1999). 즉 유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양육자는 단순히 자율적인 행동이나 표현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아에게 규칙을 부여하고 동시에 규칙을 이해시키면서 행동을 요구하는 합리적이며 설득하는 긍정적인 부모역할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하는 유아 자율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 지도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 정적 상관성이 나타난 연구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별로 없으나,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 활동이 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낸 점은, 정리정돈 및 전이 활동이 성인으로부터의 타율적인 지시와 강압적인 의무감에 따라 이루어지면 자기규제와 자율성 발달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DeVries & Zan, 1994)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은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밝혀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유아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는 양육행동으로 유아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스스로 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유아들은 타인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행동 이행이 아닌, 정리정돈 및 전이 활동을 내면화된 동기에 의해 실천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지시나 요구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강요라고 느끼게 될 때, 유아는 저항적인 반응을 보여 적절한 자기조절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이정란, 2003)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일과활동 중 비교적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지는 자유선택활동과 집단활동 중 보이는 자율행동과 합리적 지도와의 정적 상관관계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김기순, 박인전, 2002)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김기

순과 박인전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합리적 지도와 친밀감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들은 놀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 표현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유선택활동 중에 자신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놀이하듯,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자율행동 수행하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를 둔 유아는 집단활동을 하며 공동 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과 약속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며,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행동을 실천한다는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어머니가 가정에서 합리적으로 유아가 행하는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였을 때, 유아가 유치원이라는 사회기관에서도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의 다양한 배경이 유아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문화와 행동을 전수한다는 연구(Dix et al., 2007; Low, 2003; Ng et al., 2004)를 지지하는 것이다. 나아가 유아의 자율행동이 성인이 제시하는 적절한 훈육과 지도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능력(Peters, 1987)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의 하루 일과운영 절차나, 학급을 운영하는 교수-학습 방식이 유아의 자율행동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DeVries & Zan, 1994; Seefeldt & Barbour, 1994)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자율행동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는, 합리적 지도, 애정성, 제한 설정의 양육행동이 유아 자기조절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수정, 2005; 임희수,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 때 가정에서 보이는 유아 자율행동이 높다는 연구 결과(김정주, 1991)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점은, 가정에서 보이는 유아 자율행동을 평정한 선행 연구와 달리, 유치원 일과활동 중 요구되는 자율행동을 교사가 평정했던 본 연구의 특성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문화와 규범 등의 면에서 가정과 유치원은 집단의 성격이 다르고, 어머니와 교사가 가진 자율행동의 기준과 가치에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하여 두 변인 사이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한계설정만 유아 자율행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계설정을 제외한 합리적 지도, 애정성, 반응성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이 유아의 자율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을 제외한 한계설정, 애정성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한계설정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와 미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반응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등원 및 일과계획과 미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애정성의 양육행동만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합리적 지도는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리정돈 및 전이, 평가 및 귀가, 집단활동, 등원 및 일과계획의 순이었다. 또한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반응성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등원 및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와 미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아는 합리적 지도, 반응성을 제외한 한계설정, 애정성의 양육행동 하위 요인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한계설정만이 자율행동과 미약한 정적 관계가 있으며, 여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 반응성이 자율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를 많이 할수록 남아의 자아통제력이 낮고, 남아, 여아 모두 어머니가 인성적, 지위적 언어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정지영, 2005)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남아가 한계설정의 양육행동과 아주 미약한 정적 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여아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반응성의 두 가지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인 점은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하여 어머니의 언어적 대화 및 행동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므로, 여아에 비해 어머니가 반응적으로 대해 주는 상황을 덜 지각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는 남아보다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의 합리적이며, 반응적인 양육행동에 의해 자율행동 수행이 높아졌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적합한 양육행동을 파악하여 자녀와 상호작용 하여야 하며 유아에게 자신이 행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의 언어와 행동에 적절

하게 반응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자율행동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과 유치원에서 유아가 가진 기질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유아의 기질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유치원에서는 유아가 가진 기질적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속에서 주변상황을 탐색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며, 상황에 맞게 활동하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유아 자율행동 수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후천적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자율행동 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자율행동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B.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이 유아의 자율행동과 미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유아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미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활동성과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등원 및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평가 및 귀가, 집단활동의 순이었다. 또한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적응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아주 미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남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이 유아의 자율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과 유아 자율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성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등원 및 일과계획,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 자유선택활동의 순이었다. 또한 유아의 기질 차원 중 생리적 규칙성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여아의 경우, 유아의 기질 구성 차원 중 활동성과 반응성이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정리정돈 및 전이와 미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가 유아 자율행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합리적 지도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인 정리정돈 및 전이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자유선택활동, 평가 및 귀가, 집단활동, 등원 및 일과계획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한계설정만 유아 자율행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이 유아의 자율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과 미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한계설정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 집단활동, 평가 및 귀가와 미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반응성은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등원 및 일과계획과 미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모두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합리적 지도는 유아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자유선택활동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리정돈 및 전이, 평가 및 귀가, 집단활동, 등원 및 일과계획의 순이었다. 또한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반응성은 유아의 자율행동 하위 범주 중 등원 및 일과계획,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전이와 미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유아의 다양한 연령과 인지양식 및 내적 변인을 고려하고,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심리적 자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유아가 유치원 일과활동에서 나타내는 자율행동 수행은 교사의 일과운영 방

침이나 교수-학습 운영방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교사의 언어통제유형이나, 교수-학습 운영방안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율행동을 교육기관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가 유아를 평정하였으나, 이는 가정에서 측정하는 유아의 자율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동시에 유아 자율행동을 측정하여 유아의 자율행동 발달양상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위하여 직접적인 관찰이나 부모와의 면담을 통한 폭넓은 자료수집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및 포괄적인 가정환경과 유아의 자율행동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곽혜경 (1998). 유아의 기질, 유아기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권수정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윤, 장영희 (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87-99.
- 김경희 (2002). 현실요법을 적용한 자기통제 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율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순, 박인전 (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2), 27-43.
- 김남희 (199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율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윤호열 (2005). 유아의 내적·외적 변인이 자기규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3), 185-197.
- 김영희 (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29-31.
- 김은미 (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 (199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율성과의 관련성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수, 유병인, 육동원, 박윤식 (1999). 유아의 기질과 운동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3), 233-243.
- 김현정 (2001). 자율성 개념분석의 비판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김정희 (1998). 교류분석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자율성과 생활자제에 미치는 효과. 동서정신과학, 1(1), 133-146.

- 모인선, 김희연 (2005). 유아의 성격, 부모 만족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아동교육, 14(1), 131-144.
- 문경주 (2005). 청소년기 자율성 욕구와 부모 허용 간 불일치가 우울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행동발달 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서정은 (2005).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에 따른 또래간 상호작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의진 (2004). 과잉 조기 인지교육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안미경 (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선 (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숙 (2006).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유아의 자율성과 연대감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여성, 11(2), 211-226.
-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우수경, 김기에 (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정서표현과 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자율성. 유아교육학논집, 11(2), 331-348.
- 유안진 (1986). 한국전통 육아방식. 한국생활과학연구, (4), 311-314.
- 이경옥 (2004). 유아의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이광자 (1992). 부모의 양육방법이 유아의 사회성과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논총, 7(1), 111-136.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안 (2002). 협동학습이 학습장애아의 자율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2000). 디어든의 자율성 교육론. 교육철학, 24, 73-91.
- 이학선 (2007). 유치원 일과활동에서의 유아 자율행동 검사도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길순 (2005). 장 독립성-장 의존성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율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2005).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영 (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민, 이순형 (1998). 상황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자기 규제에 대한 판단. 아동학회지, 19(2), 147-157.
-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숙, 김미숙 (2006). 교사와 어머니가 평정한 기질 차이 및 자기조절 능력 간의 관계. *열린 유아교육연구*, 11(2), 1-22.
- 최연철 (2002). 유치원 교사의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른 현직교육의 방향. *열린유아교육연구*, 7(2), 279-296.
- 한미예 (2004). 어머니 성역할 태도에 따른 3세, 5세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자율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희정 (2006). 유아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환, 山本愛子, 片岡美子 (1997). 유아의 자발적인 정리정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연구*, 17(1), 105-121.
- 홍계옥 (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황윤세 (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Bell, N. M. C. (2005). *Socializing children for autono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USA.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rey, W. B., & Mcdevitt, S. C. (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Journal of Pediatrics*, 61, 735-739.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 Cruse, S. P.,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DeVries, R., & Zan, B. (1994). *Moral classroom, moral children: Creating a constructivist atmosphere in early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Dix, T., Stewart, A. D., Gershoff, E. T., & Day, W. H. (2007). Autonomy and children's reactions to being controlled: Evidence that both compliance and defiance may be positive markers in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4), 1204-1221.
- Elias, C. I., & Berk, L. E. (2002). Self-regulation on young children: Is there a role for sociodramatic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 216-238.
- Lamb, A. (1992). *New Summerhill*. New York: Hart.
- Low, C. M. (2003). *Self-regulation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Roles of cognition, temperament and paren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USA.
- Mattanah, J. F. (1999). *Parental encouragement of autonomy enhances children's competence at school in lat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 Merrell, K. W. (1999).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Ng, F. F., Kenny-Benson, G. A., & Pomerantz, E. M. (2004). Children's achievement moderates the effects of mother's use of control and autonomy support. *Child Development, 75*(3), 764-780.
- Pelco, L. E. (2007). Self-regulation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Intervention idea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venting School Failure, 51*(3), 36-42.
- Peters, R. S. (1987). *The concept of education*. London: R.K.P.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1*, 37-86. Hillsdale, NJ: Erlbaum.
- Seefeldt, C., & Barbour, N. (1994). *An introduction (3rd ed.)*.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 Someya, T. (2000). Effect of gender difference and birth order on perceived parenting style. *Psychology and Clinical neuroscience, 53*, 77-81.
- Stefanou, C. R., Perencevich, K. C., DiCintio, M., & Turner, J. C. (2004). Supporting autonomy in the classroom: Ways teachers encourage student decision making and ownership. *Educational Psychologist, 39*(2), 97-110.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er/Matzel.
- Vygotsky, L. S. (2000). 사회 속의 언어[Mind in society]. (조희숙 역). 서울: 양서원. (원전은 1978에 출판)
- Wills, T. A., DuHamel, K., & Vaccaro, D. (1995). Activity and moo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Test of a self-regulation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01-916.
- Zhang, D. (2005). Parent practices in facilitating self-determination skills: The influences of cul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special education status. *Research &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s Disabilities, 30*(3), 154-162.

ABSTRACT

Relationships among You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Autonomous Behavior

Ha, ji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re related to young children's autonomous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268 5-year-old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26 classes of the public kindergarten located in a city 'S' and 'J' in GyungSangNamDo.

The result of this study is like this.

First,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emperaments and the autonomous behaviors of young children. As the result, the activity, among dimensions that constitute the temperament of young children, had the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utonomous behaviors of young children.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emperaments and the autonomous behaviors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e sex, in case of the male children, among dimensions that constitute the temperament of young children, the activity had the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utonomous behaviors of young children. In case of the female children, dimensions that constitute the temperament of young children had no meaningful correlation with the autonomous behaviors of young children.

Secondly,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utonomous behaviors of young children and the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Reasoning guidance, among the subcategories of child-rearing behaviors, had weak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utonomous behaviors of young children.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 subcategories of autonomous behaviors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e sex, in case of the male children, reasoning guidance had weak positive correlation with

clean-up and transition. Limit setting, among the subcategories of the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had weak positive correlation with free-choice activities, clean-up and transition, group activities, and evaluation and departure.